금주의 법구–〈법?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잘못을 찾기는 쉬우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어렵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3월 13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사상 최악 산불피해 불교계 온정 '절실'

동해안 재산피해 '막대'… 현장은 여전히 '막막'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지난 4월 4일 밤 강원도 고성 · 강릉 · 속초 등에 번진 대형 산불로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한 불교계 온정의 손길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1000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과 추산하기 힘들 정도의 재산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불교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산불 발생 직후인 4월 5일 긴급구호단을 현장에 급파, 현지조사를 거쳐 현재 구호부스를 운영하며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신흥사복지재단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전면 취소한 채 힘을 보탰다.

현재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신흥사는 고성 천진초등학교, 아야진초등학교와 속초 장천마을에 구호부스를 설치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이재민들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부터 음료, 과일, 떡, 비스켓 등의 드라이푸드로 구성된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동식 세탁차량을 운영하며 이재민들의 개인위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인 원행 스님도 주요 일정을 뒤로한 채 12일 화재 피해현장을 방문, 이재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구호단의 봉사활동을 격려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오전 속초 장천마을회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만난 뒤 화마가 스쳐간 가옥을 둘러보며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속초시장을 만나 (재)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모연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고성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을 위로 방문하고, 고성군에 1억 원의 기금을 기탁했다. 이외에도 화재 피해를 입은 속초 보광사를 참배했다.

이처럼 불교계의 적극적인 구호활동에 전국 각지의 사찰과 단체에서도 성원을 보내고 있다. 가장 먼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6일 중앙재해구호기금협회에 구호 성금 1000만원을 기부하며 화마 피해 복구를 기원했다. 뒤이어 서울 구룡사 · 일산 여래사(회주 정우)의 1억 원, 조계사(주지 지현) 3000만원, 봉은사(주지 원명) 3000만원, 법주사 1000만원, 교구본사주지협의회 1000만원 등이 (재)아름다운동행에 모연됐다. 4월 11일까지 아름다운동행에만 1억8000만원의 성금이 답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는 강릉시청과 동해시청 재해대책본부에 각각 1000만원을 후원했으며, 울산 백양사(주지 명본)는 산불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500만원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전국 대학교 불교동아리 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4월 19일까지 '강원 산불 피해돕기 성금' 모연에 나섰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도 21일 봉행하는 전국단위 법회에서 성금 모연을 독려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신흥사는 11일 주택피해 이주민 1가구당 50만원씩 온누리상품권 총 2억1400만원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주택피해 이주민은 속초시 63가구, 고성군 365가구 등 총 428가구다. 신흥사 총무 무문 스님은 "여러 구호물품이 이재민들에게 보급되고 있지만 가구마다 필요한 물품에 차이가 있어 상품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속초 신흥사 등 구호단 급파
지역 봉축행사 전면 취소도
원행 스님 12일 이재민 위로

전국 사찰 성금 전달 잇달아
사찰 · 단체 자체 모연도 확대
"상황 안정까지 관심 절실해"

불교계 구호활동과 성금 전달은 계속되고 있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복귀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10개 부처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측은 "긴급구호단은 구호활동을 모니터링하며 현장 지원단체들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대피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재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심리적 불안의 여파는 장기화될 것 같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주민들이 절망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금 기탁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하나은행 271-910006-64104) 또는 (재)아름다운동행(농협 301-0137-6667-11)을 통해 하면 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긴급구호단과 신흥사, 신흥사복지재단 등은 고성 · 속초 등 산불피해지역에 구호부스를 설치했으며, 이재민들에게 드라이푸드를 중심으로 한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의 위생을 위한 이동식 세탁 차량도 운영 중이다. 사진제공=조계종사회복지재단

조계종 불교성전 편찬, 막 오른다

오는 4월 18일 편찬추진위 현판식 및 1차 회의

첫 종단본 편찬 '기대'
상임위 · 기획위원 위촉
무비 · 지안 스님 등 참여
"불교계 지혜 모을 것"

조계종 첫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계종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원행, 총무원장)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추진위 현판식을 연데 이어 4층 회의실에서 상임위와 기획위 연석회의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계종은 불교성전 편찬을 위해 증명에 종정 진제 스님, 지도위원에 원로의원과 명예원로의원 스님들을 모신 바 있다. 현재 추진위원장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 추진위원은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종정기관위원, 포교신도단체임원 등으로 구성된 상태다.

1차 회의는 추진위원장 원행 스님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구성원 위촉과 함께 이들이 한자리 모여 불교성전 편찬 방향과 체제, 주요원칙을 논하는 자리로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진행된다.

불교성전 상임위원장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며, 상임위원회는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위촉직 위원으로는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선원수좌회 장로선림위원 혜국 스님,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 동국대 부총장 종호 스님,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해주 스님, 이중표 전 남대 명예교수,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정현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진광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편찬 실무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기획위원회는 총 8명으로 기획위원장에 포교연구실장 정인 스님을 시작으로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 일지암 감원 법인 스님, 동국대 교수 정덕 스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이미령 북칼럼리스트가 위촉직 위원으로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과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위 측은 "각 위원 명단은 완료 상태가 아니며 사업 진행을 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며 "불교성전 편찬은 미래불교를 열기 위한 초석으로 제36대 집행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불교 각계의 지혜를 모아 전법 포교의 근간이 될 성전을 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성전 편찬 사업에 대한 불교 각계의 성금이 답도하고 있다. 1월 16일 동국대 송일호 교수와 연꽃모임 이정옥 회장이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4월 1일 포교부장 가섭 스님, 종회의원 화평 스님, 선일 스님, 성찬 스님 등 서울불교전문강당 2기 동문회 스님들이 펴난기금으로 써달라며 1220만원을 보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시방세계 A5
연등회보존회, 글로벌 서포터즈 교육 현장

불교와 미학 A8
향일암과 바닷가의 수도승


백만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엽니다

백만원력결집선포식 일시 : 2019년 4월 17일(수) 오후 4시 30분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백만원력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백만의 힘을 모아 수다타 장자의 원력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수다타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자들이 깃든 기원정사를 세웠듯
대한불교조계종은 불법승을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백만원력을 통해 한국불교의 도약과 웅비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첫째, 백만원력으로 부처님(佛)의 뜻을 봉행합니다.
경주남산 열암골에 1,300년 동안 넘어져 있는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성지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세웁니다.
부다가야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백만원력으로 가르침(法)의 뜻을 봉행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군법당을 세웁니다.
육 · 해 · 공 3군본부에 법당을 건립해 젊은 군불자들이 언제나 법문을 듣고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백만원력으로 수행자(僧)의 뜻을 봉행합니다.
노령을 맞으신 스님과 불자를 위해 『불교전문 요양병원 · 요양원』을 건립합니다.
사부대중이 치료와 수행을 하며 세연을 다할때 까지 여여한 모습을 지킬수 있도록 종단과 동국대의료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원력을 세우지 않았다면 2,600년 역사의 불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다타 장자가 원력을 세우지 않았다면 기원정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부대중이 원력을 세우지 않는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불교는 원력과 발심의 종교입니다.
백만 명의 원력이 한국불교의 앞길을 백만 배 환하게 비춥니다.
당신의 원력과 발심이 한국불교의 내일을 밝힙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백만의 수다타 장자입니다.

▣ 모연 동참 안내
▷ 저금통 : 발우모형의 저금통(매일 100원씩 저금)
▷ 후원계좌
농 협 : 301-0248-0882-41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국민은행 : 008601-04-152458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우 체 국 :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ARS : ☎ 060-700-0012(1통당 3,000원)
▷ 문의 : ☎ 02-6273-0108